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중간안)에 대한 부민 여러분의 의견 모집 결과

평성 16년 12월 21일
교토부 지사 직할조직 국제과
(전화 075-414-4311)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중간안)에 대해, 부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했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및 이에 대한 교토부의 생각을 공표합니다. 또한 제출하신 부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을 정리해 같이 공표합니다.

- 1 의견 모집 기간
평성 16년 10월 19일(화) ~ 평성 16년 11월 18일(목)
- 2 의견 제출자수
30명
- 3 의견의 요지와 교토부의 의견
별지 참조

참고

-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책정 위원회 위원

(참여)

성명	직업 등
스도우 신지	교토산업대학 교수
나카무라 준이치	(재)국립 교토 국제 회관 관장

(위원)

성명	직업 등
아리타 미치요	(특활) 관서 국제교류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권 수진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 (소노다 여자대학 강사)
사가네 마코토	교토 지역유학생교류 추진협의회 위원
시미즈 이쿠코	(재) 대학 콘소시엄 교토 주간
슈 이세이 (좌장 대리)	리즈메이칸 대학 정책 과학부 교수
니이노베 키요시	(주) 국제 전기 통신 기초 기술 연구소 담당 과장
후지와라 토시유키	(재) 교토부 국제 센터 상무 이사
호소오 마사오	(사) 교토 경제동우회 국제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무네타 요시후미 (좌장)	교토부립대학 인간환경학부 조교수
모리 준이치	교토대학 유학생센터 교수

・책정 위원회 개최 현황

평성 16년 6월 9일 (수)	제1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7월 5일 (월)	제2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8월 6일 (금)	제3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8월 23일 (월)	지사와 참여 의견 교환 제4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9월 14일 (화)	정책 조정 회의
평성 16년 9월 27일 (월)	제5회 책정 위원회
평성 16년 11월 23일 (화)	경영 전략 회의
평성 16년 11월 26일 (금)	제6회 책정 위원회

(별지)

「KYO의 해외 인재 활용 플랜」과 관련한 의견의 요지와 이에 대한 교토부의 생각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p>전개 1 : 해외인재유치의 추진에 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 국어로 정보를 발신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사용해 정보를 발신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 우선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3개 국어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토부를 둘러싼 국제화의 상황 변화(외국적 부민의 동향 등)를 고려하며 대응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어드바이저」는 대단히 흥미로운 시책이다. 꼭 참가하고 싶다. ○ 귀국한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를 중심으로 해외 거점을 만들어, 해외로 정보를 발신한다든지 혹은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와 학자 등을 교토로 유치하면 좋지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플랜에서는, 교토 정보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발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와 귀국한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토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하게 되는 「유학생 어드바이저」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창설과 더불어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를 중심으로 한 귀국 유학생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학생 등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교토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와 지역간의 연결은 중요하다. 유학생을 지역 활동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들이 지역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등이 지역 만들기나 산업 활성화에 참가할 수 있는 워크 샵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체재 중인 연구자 등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강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들의 국제 감각 양성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가 일본어 베이스 (정보를 일본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작성을 일본인이 하는 것) 라면 유학생에게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진정한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시스템 만들기 해야 한다. ○ 홈페이지 작성 등 정보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네이티브 외국인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의 시점에서 홈페이지의 다언어화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내용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외국인에게 있어 알기 쉬운 홈페이지 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 등 외국적 부민의 홈페이지 제작 참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이제까지 구미로의 유학과 취직을 지향했다. 하지만, 미국 9·11 테러 이후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기에, 일본에게 있어서는 해외 인재 유치의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를 획득하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IT 분야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인도의 인재 유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토의 인적 자원으로, 해외 인재가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p>전개 1 : 해외인재유치 의 추진에 관 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교토부 국제과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를 충실히 해야 한다. ○ 교토의 기업과 제휴해서, 기업으로부터의 정보 발신(인재 모집, 업무 제휴 등의 정보)을 충실히 하면 좋지 않을까. ○ 게시판이나 메일 등을 활용해, 상호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국제화를 위한 교류 활동(예를 들어 외국 학교와 일본 학교간의 교류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그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했으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발신 홈페이지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한 후 다언어화하여 일원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인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정비를 관계 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인재 बैं크를 창설해, 재주 외국인과 기업, 국제 교류 단체와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상호간 유익한 정보가 교류 가능한 프로그램을 민간의 힘을 빌려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의 유치는, 일본이 장래에 이민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 점을 시야에 넣은 해외인재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F T A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재의 유동화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 앞으로 교토부를 둘러싼 국제화의 진전을 생각해, 부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가며 새로운 시책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도시 교토」를 활용한 해외 인재 유치를 생각했으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는 「대학의 도시」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토 부내의 유학생 수가 4,500명을 넘어서는 등, 교토는 국제 사회로 향한 발신력을 가진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교토의 특징을 살린 도시 만들기가 필요하며, 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대학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가진 매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외국인 교원의 유입을 추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 특구」의 신청에 있어서 관계 성청(省庁)과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가. ○ 능력 중시의 심사를 통해서 질 높은 해외 인재를 유입해, 「재주 외국인을 교토 부민과 대등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해외 인재 특구」는 교토부 전역에서 실시할 생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과 연구자가 입국 심사를 할 때 그 절차의 간략화와 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토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의 활동 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 활용을 목표로 하는 「교토 해외 인재 특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특구의 대상지역은 교토부 전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 정보의 해외 발신 거점으로 「교토 센터」의 설치를 제안했는데, 국제 교류 기금의 해외 사무소나 재외 공관의 홍보 문화 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교류 기금과 재외 공관의 문화 홍보 센터, (재)자치체 국제화 협회의 해외 사무소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여, 교토 정보를 폭넓게 발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토부는 해외 5개 지역과 우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지역들의 주요 대학에도 교토 정보 발신 거점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p>전개 1 : 해외인재유치의 추진에 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해외로 보내는 교토 정보의 효과적인 발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 교토의 역사 깊은 문화 등을 해외에 널리 전파했으면 한다. ○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야말로 교토가 타지역과 차별되는 소프트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직감적으로 교토의 훌륭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정보 발신을 했으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는 매력적인 전통 문화와 산업 등이 축적된 지역으로, 그것들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발신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다언어화와 해외 발신 거점의 설치 등 구체적인 정보 발신의 시책을 진행 중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에 의한 단위 취득 프로그램 등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이용한 대학의 단위 취득 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의 정비는 교토 부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해외 인재의 유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 콘소시엄 교토와 교토 부내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 시책」이 지역에 폭넓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의 활용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일본에 온 외국인의 지식과 기술을 살리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나 자신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참가하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의 정보 발신과 기업과의 매칭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대학, 기업, NPO 단체, 경제 단체, 유학생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젊은이들이 전통 문화, 산업에 관심을 잃고 있는 한편, 외국인들 중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전통 공예의 담당자로 일본에 초대한다면, 일본인들도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가 일본 연구, 교토 연구의 거점 - 일본 문화의 발신지가 되어 국제적인 지적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의 다양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가 모여 기술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p>전개 2 : 해외인재유입체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 정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 확보에 관해 힘써주었으면 한다. ○ 해외 인재 유치와 유입 기관(대학, 기업 등)의 환경 정비, 협력관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부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주택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교토부에서는 유학생 주택 보증제나 연구자와 유학생을 위해 특별 임대 부영 주택의 우선권 설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플랜에 있어서도 유학생과 연구자의 주거환경 정비에 관해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해외 인재의 유치·유입·활용에 대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기업, 대학, 경제 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단체가 주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인턴쉽은 과거의 취업 체험형을 벗어나, 기업이 원하는 즉시 쓸 수 있는 취업 형태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PDCA 사이클에 의한 시책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게 있어서 주거 문제가 일본 생활의 가장 큰 문제이다. 교토는 「국제 도시」로써 유학생 기숙사의 건설과 「보증인」의 확보 등 주택 지원 체제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플랜에서는 유학생, 연구자를 위한 기숙사(세미나, 학습·연구를 할 수 있는 설비)와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 시설 확보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률이 적은 공공 시설과 기업의 사원 기숙사, 재활용 가구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초빙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해 낮은 요금의 숙박 서비스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유학생에게 원활한 주택 확보를 지원하는 유학생 주택 보증 제도를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기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교토 장학금 제도 창설」이라는 발상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토로의 유학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교토 본래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발신하거나,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 유학생이 많은 교토에 「교토」라는 이름을 붙인 장학금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교토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의 기부금을 모아 지역이 일체가 되어 지지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플랜은, 제주 외국인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기능의 강화, 유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주거 환경의 정비, 외국인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 등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토 정보를 해외에 발신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다언어화와 해외 정보 발신 거점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토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발신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연구, 학습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며, 지역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그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부민 등 전 지역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예를 들어 「교토 국제 학교」를 지원)과 공공 시설 표시의 다언어화를 민간을 포함해 의무화 하는 등, 지역의 국제화에 행정이 철저하게 임한다는 결의를 정책으로 명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외국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의 일본어 학습 지원」과 「모국어 문화 교육」등인데,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관 등과 연계해 모국어 교원 자격자들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 시설 표시의 다언어화에 관해서도 관계 기관과 NPO 등과 연계해, 재외 외국인의 정보 제공과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전개 2 : 해외인재유입 체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 최근 소학교 등에서 국제이해 교육 등이 활발하게 실시 되는데, 아이들의 의식 함양에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 부민(성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 소·중학교의 종합 학습 시간에 교토부 명예 우호 대사를 강사로 불러 국제 이해와 다문화 교류 사업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부민들에게는 현재 교토부가 발행하는 홍보지와 계발지, TV·라디오의 홍보 방송 등을 통해 상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화에 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인재에 대한 부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 공생 사회로의 부민 합의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슬람 교도 같은 소수 민족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습관이나 식생활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	○ 본 플랜에서는 소수 민족을 포함한 재주외국인을 교토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문화의 다양성을 배려한 교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재, 해외 인재의 적극적인 유입 시책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현명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다언어화에 의한 심리 상담 제도의 정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재주 외국인은 언어와 습관의 차이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한다.	○ 본 플랜에서는 재주 외국인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정비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매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 만들기의 추진」을 목표로, 부내의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실시하는 심리 상담 제도의 정비와 학습 지도원 제도의 확립 등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에 대해 시책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적 부민을 위해 생활 상담 체제와 생활 정보의 발신 (홈페이지, 메일 메거진, FM 라디오) 도 충실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대화의 장이 적다. 대학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과 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 평소 교토 생활에 친숙해질 기회가 적은 유학생 등에게 교토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는 「유학생 패스포트」의 발행도 검토 중입니다. 덧붙여서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일원적으로 다언어 발신하는 정보 플랫폼의 정비를 대학과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유학생 패스포트에 대해 제안한다. ① 공적인 패스포트로써 신분 증명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②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보내,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회를 만든다. ③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여, 교토에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그것을 통해 일본인과의 교류 기회를 늘리고, 문화의 상호 교류를 발전 시킨다.	○ 본 플랜은 유학생에게 패스포트를 발행해 시설 입장료의 할인 등 특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토의 문화나 첨단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유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 외 관계기관과 유학생 등의 의견도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한 패스포트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 지금까지 외국인에 관한 플랜의 작성과 외국인을 위한 시설, 상담 창구의 설치가 진행되어 왔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외국인 전용 시설, 상담 창구의 설치와 충분한 홍보, 외국인과의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본 플랜에서는 재주 외국인을 교토부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다민족·다문화를 배려한 다문화 교류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적 부민을 위해 생활 상담 체제와 생활 정보의 발신 (홈페이지, 메일 메거진, FM 라디오) 도 충실하게 진행하며,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일원적으로 다언어 발신하여 발신하는 플랫폼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p>전개 2 : 해외 인재 유입에 체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p>	<p>○ 최근 해외 인재의 유입과 함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흉악한 사건도 있다. 유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법률 강습이나 강연, 법률 상담회 등을 실시하면 치안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p>	<p>○ 유학생과 외국인의 일부가 일으킨 사회 문제가 마스크 등을 통해 크게 보도된 탓에 외국인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한 위험도나 부담, 증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 해외 인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부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다문화 공생 사회로의 부민 합의 만들기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일본의 제도, 법률에 대해 모르는 점도 많을 거라 생각하기에 상담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p>
	<p>○ 해외 인재에 대한 부민의 의식(외국인 범죄 증가 등에 의한 좋지 않은 이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근 마스크 등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보도되어, 해외 인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외국적 부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부민들에게 구해, 다문화 공생 사회로의 부민 합의를 만들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 계발 활동을 한층 더 추진하겠습니다.</p>
	<p>○ 본 플랜의 실시를 환영한다. 지난 2, 3년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는데,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되었다. 사실을 보도할 필요는 있지만, 일본에 있는 많은 외국인의 노력하는 모습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간의 깊은 이해를 위해 마스크의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본 플랜의 추진에 있어서 마스크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p>	<p>○ 본 플랜의 추진을 통해,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인재의 활동을 널리 소개해, 편향적인 이미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p>
<p>전개 3 : 해외 인재의 활용 추진에 관한 의견</p>	<p>○ 「인턴쉽 제도」와 「인재뱅크」 설치 등의 선진적인 시도를 앞으로도 주목하겠다.</p>	<p>○ 본 플랜에서는 지금까지의 인턴쉽과 달리 즉시 쓸 수 있는 형태의 인턴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장점이 되는 제도를 기업과 대학, 관계 기관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인재 데이터 뱅크를 통한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교토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p>
	<p>○ 대일본 스크린과 리즈메이칸 대학에서는 기업과 유학생에 대해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꼭 참고하길 바란다.</p>	<p>○ 해외 인재와 기업의 매칭에 관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토 기업들의 여러가지 시도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에 대해 기업들의 협력을 부탁할 생각입니다.</p>
	<p>○ 교토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다수는 일본인과 교토 기업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 유학생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등 장기 휴가를 이용해 인턴쉽에 참가하여, 산학 연계를 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교토 기업(특히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한다. 덧붙여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인턴쉽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사해, 지금까지의 인턴쉽과는 다른 즉시 쓸 수 있는 형태의 인턴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휴가 중에 해외에서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경제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토의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를 창설하는 등, 유학생의 생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p>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전개 3 : 해외 인재의 활용추진에 관한 의견	○ 해외 인재를 모집하고 싶어하는 기업과 연계해서 구인 요망 등을 대학의 국제과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인재와 기업의 매칭에 관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 인재 데이터뱅크에 의한 매칭 시스템을 웹 사이트상에 만들어 교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4 : 지역이 하나 되는 추진에 관한 의견	○ 본 플랜은 다수의 주체가 상호 협력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통괄을 담당하는 창구나 각각의 주체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 공생 기본 조례」의 검토가 실려 있는데, 시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시점뿐 아니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도 배려했으면 한다. ○ 유학생을 받아들인 다문화 공생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주거의 부족과 취직 기회가 적은 면은 당면한 과제이다. 외국인의 유입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념보다는 구체적인 시책에 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 해결해야 한다. ○ 외국인들의 입장에 선 알기 쉬운 교토 만들기를 해 나갔으면 한다.	○ 본 플랜은 행정·경제 단체·기업·대학·연구 기관·대학 콘소시엄·NPO 등에서 조직하는 단체의 의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개의 사업에 관련한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단체 안에서 명확하게 정하려고 하는데, 민간 단체 등의 지혜와 힘을 빌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조례에 관해서는, 앞으로 플랜을 기본으로 진행해 나가며, 책정위원을 중심으로 한 부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 재주 외국인을 교토부의 구성원으로 인식해, 다민족·다문화를 배려한 교류형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플랜 등의 홍보에 관한 의견	○ 액션 플랜의 중간안을 영어로 제작하여 대학과 연구소에 배부하는 등,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외국적 부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 외국적 부민이 부의 행정에 참가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 이 플랜은 일본에 온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이 플랜을 많은 유학생에게 PR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플랜의 책정 위원에 2명의 외국적을 가진 분이 참가하였는데, 앞으로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부민의 의견 모집에 있어서도 일본어 외에 영어 및 후리가나를 첨삭한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외국적 부민을 지원하는 NPO 단체와 부내 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 부민의 참여를 진행하며, 다양한 기회를 준비해 외국적 부민의 행정 참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본 플랜의 중간안은 부내 공공 시설, 대학의 유학생과, 민간 국제 교류 단체, 경제 단체 등 폭넓은 분야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외에도 후리가나가 붙은 양식과 영어판을 작성하여 교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플랜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전 반 적 인 의견	○ 교토시에는 교토시 국제 교류 회관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유학생과의 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토부와 교토부 국제 센터와의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본 플랜은 행정, 기업, 관계 단체, NPO 등, 각 단체가 주체적으로 참가해, 상호 이익의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정·촌이나 단체들과도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목	의견의 취지	교토부의 생각
그 외 전 반 적 인 의견	○ 이 플랜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제안된 계획들이 실현됨에 따라 교토의 지역 활성화와 국제화에 연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 본 플랜은 교토부의 액션 플랜 중의 하나이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를 시작으로 많은 부민들과 열린 토론을 펼쳐, 구체적인 시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본 플랜에서 만들어진 시책에 관해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 훌륭한 플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가.	○ 기본적인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서둘러야 할 시책 등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에 관해서는 부의 재정 현황을 고려해나가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본 플랜의 사업 평가를 실시해, 다음 해의 정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